

활기있고  
快適한  
漁港漁村  
建設

會訓  
● ● ●  
創奉誠  
意仕實

# 漁港消息

발행경 편집인 孫井植 特殊 韓國漁港協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3  
등록일: 1988년2월19일 568-6651~2  
FAX. 568-6653  
e-mail: ktpa8769@chollian.net

## 99년도 어항개발에 1,537억원 투입

### 태·폭풍기 이전에 주요시설 마무리

내년도 어항시설사업비가 1천5백37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6백90억원,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8백47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별로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개발하는 제1·3종어항 개발사업에 1천3백80억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제2종어항 시설사업 지원을 위하여 1백57억원의 보조금이 계상되어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1·3종어항의 시설비는 1천3백19억원을 투자하여 계속투자중인 29개항과 유지·보강

항 21개항 등 모두 50개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시설비예산 6백34억원으로 인천 울도항 등 12개항에 대하여 기본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강원 장호항 등 21개항의 유지·보강 시설 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92년 이전에 착공되어 계속투자중인 17개항에 대하여 농특세예산 6백83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 제주 김녕항 등 4개항을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99년도에는 어항시설 공사 규모의 80%이상을 상반기중에 조기발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에 적극적으로 여토록 하는 한편, 본격적인 태·폭풍기인 7~8월 이전에 주요시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98하반기에 신규로 지정된 인천 선진포항 등 17개항의 시설계획 수립을 위하여 45억원의 예산으로 기본조사설계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동시에 환경영향평가 사업까지 병행 실시하여 2000년 하반기중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 대포항을 관광·유통 등 종합기능항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계획 및 총사업비 산정을 위한 실시설계비 예산도 5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항화보를 추가로 제작하여 어업인의 어항이용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제2종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94부터 농특세예산으로 기본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과 함께 사업비의 50%인 1백57억원이 해양수산부 소관에 계상되어 있으나, 제2종어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개발주체이므로 국고 지원과 함께 지방비를 적극 확보토록 유도하여 상대적으로 완공률이 낮은 제2종어항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에서 제2종 어항을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기술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술자를 투입, 시공현장에 대한 공정, 품질, 인력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한편 부실한 점은 시정토록하며, 시·도 및 시·군 어항공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공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패배한 후 어항공사에 상당량의 인적·물적 투자를 한 것이나, 경제공황을 맞은 미국이 바로 이런 국가적인 사업인 뉴딜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예에서 놀라운 파급효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기왕에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더 과감히 투자해야 할 부분도 있다. 다름아닌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제2종 어항시설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1999년도 어항개발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99예산	비고	
어항종류별	○ 제1·3종어항	137,970	
	- 시설비	131,937	- 기본시설 29개항
	- 부대경비	6,033	- 유지보강 21개항
○ 제2종어항	15,700	- 기본시설 46개항	
계	153,670		
예산회계	일반회계	69,000	
	○ 제1·3종어항	69,000	
	- 연구개발비	150	- 어항화보 제작비
	- 기본조사설계비	4,500	- 신규지정 17개항 기본설계용역
	- 실시설계비	500	- 대포항 실시설계용역
	- 시설비	63,642	- 기본시설 12개항, 유지보강 21개항
	- 시설부대비	208	
	농특회계	84,670	
	○ 제1·3종어항	68,970	
	- 시설비	68,295	- 기본시설 17개항
- 감리비	491	- 기본시설 46개항	
- 시설부대비	184		
○ 제2종어항	15,700		

99 제2종어항 시·도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시·도별	계	국고	지방교부금
계	32,700	16,350	16,350
부산시	2,200	1,100	1,100
인천시	1,980	990	990
경기도	700	350	350
강원도	2,860	1,430	1,430
충남도	2,640	1,320	1,320
전북도	2,020	1,010	1,010
전남도	7,580	3,790	3,790
경북도	2,760	1,380	1,380
경남도	5,920	2,960	2,960
제주도	2,740	1,370	1,370

## 집중투자로서 가시적 효과 거양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개선

UR타결이후 농어촌의 생산·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조성, 관광, 문화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94년도에 신설된 농특세로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어촌의 주민생활 질적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수개의 어촌계를 한 권역으로 묶어 총 1백60개 권역에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다수 어촌계가 참여

하는 관계로 공공시설은 어촌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원사업은 어촌별별 숙원사업 위주로 분산지원 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어촌계의 자율사업 집행과정에서 시·군의 감독소홀 및 어촌계의 사업추진 전문성 결여로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지원시설물의 관리가 부실화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99년도부터는 집중투자로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권역내 중심어항을 축으로 각종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하고, 어촌계 자율사업의 설계 및 계약체결은 집행주체인 시장·군수가 대행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완공시설에 대한 부실관리방지를 위하여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94년부터 98년까지 77개 권역에 2천1백93억원을 투자하여 총 1천2백59개 단위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도 24개 권역에 3백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1999년도 어항부문 예산이 확정됐다.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 확정된 어항부문 예산은 1천5백36억원. 1998년보다 6.7% 감소한 수준이다. 솔직히 어항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현재 나라 전체가 IMF를 극복하기 위한 경비 절감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선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더욱이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2백억원의 어항건설예산이 반영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수치상으로도 결코 감소한 수준이 아닌 셈이다. 어쨌거나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거의 예년 수준의 어항부문 예산을 편성해 준 관계당국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특히 인식부족으로 그동안 흘려받았던 어항사업이 이제야 제대로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점을 어항인들은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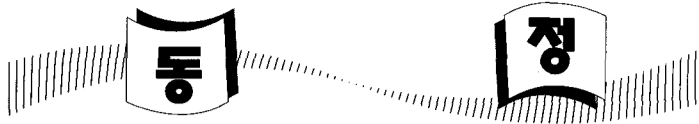
사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이 닳도록 주장한 바 있지만 어항은 수산업의 근간이자 어촌지역사회의 핵심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앞으로 수산예산의 구조를 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처럼 어항부문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시켜 어항예산을 단계적으로 수산예산의 6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요즘같은 IMF체제 하에서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어항부문건설은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이런 관점에서 해양수산부의 1999년 어항사업 추진방향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새해 어항시설공사는 8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기를 부양시키고, 고용창출에 적극 기여함은 물론 본격적인 태풍·폭풍주기 이전에 주요 시설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 어항건설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

1999년도 제2종 어항 시설사업 보조금은 모두 1백 57억원이 책정돼 있다.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50%의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자칫 제2종 어항의 쇠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제2종 어항이 어찌면 우리 어업들의 생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항임을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발전과 어항기반구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어항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특세 재원이 99년도에 끝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항사업이란 단기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또는 20~30년에 걸쳐 이룩해야 할 사업인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건국 이후 가장 어려웠고 힘든 한해가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가올 1999년이 분홍빛 청사진으로만 점철된 것은 더욱 아니다. 어찌면 올해보다 더욱 혹독한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밝힐 때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잡초처럼 이를 견뎌낸 저력있는 국민이다. 어항인 모두도 더욱 허리를 바짝 죄고 어려운 가운데서, 말 그대로 과거와는 다른 각오로 사명감을 갖고 새해를 맞도록 하자.



### '21세기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4, 5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정부 연구기관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손정식 한국어항협 회장은 12월3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실적 보고와 함께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에 예산안을 심의 확정, 4일에는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1세기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 9일에는 후쿠야 마사즈구(福屋正嗣) 전 일본 수산청 어항부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 어항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 18일에는 본회 회의실에서 어항청소선 선장회의를 주재

을 한해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어항청소에 임해줄 것과 안전운항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 이어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수여식에서 농림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23일에는 서울대학교 국가정책과정 주관 조찬강연회에 참석, 24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12월5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개최된 농어촌진흥대상 시상식에 참석, 11일에는 제2건국운동 동참을 위한 청와대 오찬회에 참석, 14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전국해상산업노련과 선원임금 채권보장방안 서명식에 참석.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12월4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1세기 해양수산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 9일에는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항로표지협회 발기인 창립총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1일 광주전남 21세기발전협의회가 주최한 남도문화 세미나에 참석, 4일에는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 98년도 정기총회에 참석, 8일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유공자후손장학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10일에는 제15회 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 15일에는 나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남해양문화 세미나에 참석, 17일에는 98범죄예방 출조사 자립기금모금을 위한 한마음대회에 참석, 18일에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송년간담회에 참석, 이어 전국문화기반시설 책임자대회 개최식에 참석.

▲고재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12월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의 밤 행사에 참석, 10일에는 제15회 청소년선도대상 시상식에 참석, 16일에는 김종필 총리주재 초청오찬에 참석.

▲정덕용 주식회사삼건사 회장은 12월18일 한국항만협회 이사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의 밤 행사에 참석, 9일에는 한미 친선협회 송년간담회에 참석, 11일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이사회에 참석, 14일에는 한일 친선협회 중앙회송년간담회에 참석, 16일에는 대한능력협회 간담회에 참석, 17일에는 경영자총협회 이사회에 참석, 18일에는 탄자니아합중국 음카과 대통령을 위한 오찬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후원회의 밤 행사에 참석, 8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합동회의에 참석, 8일에는 동 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에 참석, 11일에는 대한건설협회 이사 및 시도회장 간담회에 참석, 14일에는 민주평화통일 광주지역협의회 활동평가회의를 주재, 18일

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상임위원회 및 임시의원총회에 참석, 22일에는 건설공제조합 상각채권심사위원회에 참석, 이어 건설공제조합운영위원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사장은 12월1일 무안 우회도로 및 나주영산교 공사현장에 출장, 2일에는 순천전자고등학교를 방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정윤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9일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18일에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송년간담회에 참석.

▲장정연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12월3일 대한적

십자사 봉사회 10주년기념식에 참석, 8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36차상임위원회에 참석, 17일에는 대한적십자사 98년 제3차상임위원회에 참석, 18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도회 활동평가회의를 주재.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12월15일 여수 삼천포지역 공사현장에 출장.

###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 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장 송민순 △부산광역시 파견 김정수 △인천광역시 파견 하길용

### 변경

▲구자천씨 (정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8번지 소아아파트 가동 405호로 자

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598-3381

▲손승렬씨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는 최근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2동 78-1번지 동아그린아파트 101동 508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461-5096

▲김남형씨 (제주대학교 교수)는 최근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10-1번지 주공아파트 109동 604호로 주택주소를 변경했다. 전화번호 : (064)722-2650

▲유상호씨는 최근 주식회사 경진엔지니어링 (이사)으로 근무처를 옮기고 주택주소를 부산시 사하구 괴정1동 1065번지 괴정자유 3차아파트 508호로 변경했다.

### 의속

▲김기욱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의 차녀 진영 양은 지난 12월20일 서울 삼성동 웨딩플라자에서

화축을 밝혔다.

### 의원가입

▲민일규씨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특별연구원)

### 의비납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단체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임덕섭)

■개인 ▲민일규씨 (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특별연구원·평생회비)

▲홍근순씨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

▲유상호씨 (주식회사경진엔지니어링 이사)

### 부음

▲김용호씨 (분회 어항청소선 907호 기관장)는 지난 11월 29일 부친상을 당했다.



임명장 수여식  
손정식 회장, 자민련 정책위 농림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에 임명  
손정식 한국어항협 회장은 12월18일 자유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수여식에서 농림해양수산분과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손정식 회장은 정책건의 및 제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용역사업 중간보고  
한국어항협회는 12월23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어항공사공관리기법연구' 용역사업과 관련, 어항 항만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어항청소선 선장회의 주재  
손정식 회장은 12월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어항청소선 선장회의를 주재, 올해 어항청소 실적평가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어항청소 및 어항환경정화 운동에 더욱 철저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쿠야 전 일본 수산청 어항부장 예방  
손정식 회장은 12월9일 후쿠야 마사즈구(福屋正嗣) 전 일본 수산청 어항부장의 예방을 받고 양국 어항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 어촌체험관광마을 육성

내년부터 32곳 선정 어업의 소득향상

어촌의 현실을 일반인이 체험하는 어촌관광마을이 선택돼 어업의 소득원으로 활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마을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의식을 함양, 어업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선정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마을은 내년에 3군데 2000년에 5군데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각각 8군데씩 모

두 32군데가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어촌 가운데서 해양수산부가 구성한 자문단이 지역실정에 적합한 관광상품을 개발 지원하는 한편 각 메스컴을 통해 홍보,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특산물 시식과 판매를 비롯 체험어장, 수산물 채취어선 승선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

## 대천항 등 15개 연안항 건설사업에 553억 투입

해양수산부는 내년도에 대천항 등 어항관련 15개 연안항 건설사업에 5백53억원을 투입, 방파제 물양장 등을 축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업인소득 증대와 도서민의 생활편의 증진, 연안화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99년에도 지속적으로 어항관련 항만인 연안항건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항으로 신규지정

된 태안 신마 팽목 용기포 추지항 등 5개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선박안전 입·출항에 필요한 계획수심 및 정박수심 확보를 위해 1백35억원과 항만시설의 피해확대 방지와 내구연수 증대 및 항만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6백77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증·개축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1999년도 연안항 건설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별	사업비	사 업 량
계	55,319	
대 천 항	6,024	물양장46m, 방파제상부 및 기타,- 함선 및 배수시설
비 인 항	2,000	물양장 80m, 호안 70m, 방파제 6m
대흑산도항	3,000	안벽 63m
홍 도 항	3,250	방파제 25m
거 문 도 항	1,000	방파제 34m
녹 동 항	6,276	가호안 140m, 어업권보상
나 로 도 항	3,000	물양장축조 42m, 상부 114m
구 룡 포 항	1,340	물양장30m,
월 포 항	-	가호안57m,
후 포 항	2,500	방파제 23m
울 룡 항	10,446	방파제104m
주 문 진 항	1,160	방파제 40m
화 순 항	8,321	방파제 54m, 보강 57m
성 산 포 항	5,800	방파제 23m, 어선물양장 63m
에 월 항	1,202	진입도로 300m 안벽 99m

# 대포항을 다기능 종합어항으로 개발

## 해양체험공간 등 환경친화적 친수기능 구비

강원도 속초시 소재 대포항(제1종어항)이 우리나라에 내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하여 처음으로 환경측면을 고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친수성 방파제와 친수호안, 항내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순환용 구조물 시설, 어항내 공원과 광장 등의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넓은 주차장과 가두리시설 및 해양체험공간을 시설, 쾌적한 어항으로서 종전의 어항개념에서 탈피하여 획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대포항을 동해중심의 종합기능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 실시계획이 끝나는 대로 정비사업을 착수, 오는 2006년까지 총사업비 4백94억원(해양수산부 4백40억원, 속초시 5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설악산 관광특구에 위치한 대포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산물 생산, 유통·판매, 소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 기능시설 및 문화, 복지시설, 관광 휴게 등 △세력권내 어업근거지의 역할 △관광, 유통 등 종합기능 부여 △환경 친화적 친수기능 구비 등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종합기능어항으로 정비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따라서 기본 및 육상시설의 배치와 해양레크리에이션 및 관광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배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어항의 운용과 이용 측면을 고려한 어항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정 배치할 계획이다.

# 동해 해양발전소 입지조건 갖춰

## 국립수산진흥원 연구결과 경제성 월등

우리나라 동해가 미래 대체에너지로 부각되고 있는 무공해 해양온도차 발전소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국립수산진흥원 연구팀이 지난 30년간의 한국근해 해양조사관 측치를 근거로 '해양온도차 발전소 발전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팀은 전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해양온도차 발전은 무공해 자연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미래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반도 근해가 지리적으로 온대해역에 위치하지만 동해의 경우 △강한 대마난류의 지류인 동한난류수와 동해연안을 따라 저층으로 남하하는 북한난류수가 교차하는 해역이며 △연중 1℃ 이하로 존재하는 고유수도 있어 표층과 저층간 온도차가 추측치보다 의외로 크다는데서 시작됐다.

연구팀은 해양 온도차 발전의 제1조건이 표층과 저층간 온도차가 15~20℃ 이

상이란 점에 맞춰 지난 30여년간의 해양온도관측치를 이용해 2, 4, 6, 9, 10, 12월별로 수심 50~5백m와 표층간의 온도차이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매년 6월 수심 2백m와 표층간 온도차가 15~18℃였고, 8월엔 20℃ 이상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10월엔 수심 1백50m에서도 표층간 차이가 15~21℃를 나타냈으며 12월엔 수심 3백m와 표층간에 14℃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분석결과를 근거로 해수온도차 이용 가능 온도를 15℃로 설정할 경우 동해에서 매년 6월에서 12월까지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저층수를 상승시키는 데 최소 1천m의 파이프가 필요하나 수심 1백50~5백m 정도에서 발전가능 온도차를 보인 동해의 경우 파이프 길이도 5백m 정도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외국보다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획집 등 관광·휴게기능 3천3백75㎡(약 1천20평) △도로 주차장 등 공공기능 4만5천8백49㎡(약 1만3천8백60평, 주차장 면적은 1만7천8백16㎡ 승용차 기준 5백대 수용) 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불과했으나 최근 감리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 뒤부터는 입찰참가자수가 50여개사를 넘어 수작업으로는 업무처리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감리 및 설계용역 분야의 전산입찰시스템 개발로 종전 90분 정도 소요되던 입찰과정의 약 30분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우편 및 상시투찰이 가능해져 엔지니어링업체의 물류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전산입찰시스템의 확대적용은 투찰금액 입력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 이외에도 입찰행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응답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설계·감리용역도 전산입찰

# 입찰시간 단축, 결과 즉시 확인 가능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각종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용역입찰에도 오늘부터 전산입찰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도 앞으로 시설공사 입찰에 서처럼 우편 및 상시투찰이 가능해져 관련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최근 조달청은 지금까지

시설공사에만 적용해오던 전산입찰시스템을 감리 및 설계용역 입찰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오늘부터 시험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러나 운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개발된 전산입찰시스템을 수작업과 함께 병행운용한

다음 시행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용역입찰을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달청이 수작업에 의존해오던 각종 설계 및 감리용역의 입찰을 전산처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종전에는 이 분야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수가 건당 10여개사에

시설별 개발주체 및 소요사업비

구분	사업규모 및 소요사업비		시설주체	
	규모(m)	사업비(백만원)		
기본시설	방파제	980	30,624	해양수산부
	물양장	740	4,575	
	선양장	30	187	
	수역준설(㎡)	21,500	559	
	소계		35,945	
부지조성	매립(천㎡)	342	3,762	해양수산부
	포장(도로)(a)	294	845	
	소계		4,607	
친수시설	친수동대·호안	1식	689	해양수산부
	해양체험공간조성	1식	2,500	속초시
	공원 및 녹지(㎡)	7,291	1,429	속초시
	소계		4,618	
부대시설	어선수리소	50	312	속초시
	오패수처리시설	1식	1,000	속초시
	배후도로	1식	184	속초시
	기타		2,730	해양수산부
	소계		4,226	
총공사비			49,396	
해양수산부 부담			43,971	
속초시 부담			5,425	

육상시설 계획에 대한 규모 및 시설별 개발주체

(단위: ㎡)

구분	시설규모	개발주체	
수산물유통 판매기능	위판 및 활어보관시설	수협	
	수산물시장·직매장	수협 또는 민간	
어선어구 보전기능	공동창고	수협	
	야적장·어구건조장	수협	
	어선건조 및 수리소	속초시	
수산물처리 가공기능	제빙, 저빙, 냉동, 냉장	수협 또는 민간	
	수산물 처리가공시설	"	
보급기능	급수, 급빙, 급유	수협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능	어항관리, 해양관측 및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시설	939	해양경찰청 등 공공기관
	어항정화기능	폐유저장시설	198
문화복지 기능	어민복지시설	1,242	수협 또는 속초시
	공공업무	1,201	속초시, 은행 등
	공원, 녹지, 광장	7,292	속초시
	친수성 호안	1,122	해양수산부
관광휴게 기능	레저용기반시설, 지역 특산물판매, 숙박, 목욕, 생선회집, 오락시설 등	3,375	민간유치
	소계	35,747	
공공기능	에이프런, 도로, 주차장 등	45,699	해양수산부
	하수거점시설	150	속초시
	소계	45,849	
계	81,596		

# 살기 좋고 활력있는 漁港漁村건설에 寄與하겠습니다

## ISO 9001 인증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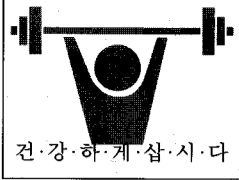
- 주요사업종목
  - ◇ 전문기술용역  
항만 및 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환경 상하수도, 조경, 농업토목
  - ◇ 설계감리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 ◇ 평가분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 ◇ 토목시공감리 ◇ 측량
  - ◇ 항만기술부설연구소

- |      |       |      |       |      |           |
|------|-------|------|-------|------|-----------|
| 會長   | 姜 信 雄 | 常務理事 | 孫 光 植 | 常務理事 | 呂 運 泰     |
| 副會長  | 閔 英 植 | 技術理事 | 宋 寅 哲 | 技術理事 | 宋 寅 錫     |
| 副會長  | 許 成 部 | 常務理事 | 吳 洪 均 | 部 長  | 金 鍾 洙     |
| 代表理事 | 孫 一 洙 | 技術理事 | 梁 熙 範 | 技術理事 | 安 重 善     |
| 副社長  | 朴 鎬 胤 | 常務理事 | 沈 相 權 | 技術理事 | 技術士(土質基礎) |



株式會社 建一엔지니어링  
KUNIL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44 한강빌딩 8F, 10F TEL : (02)539-0506 FAX : (02)539-9350



### 불면증으로 수면 부족한 사람의 점심시간 지내는 방법

밤에 잠이 안 올 때는 양의 수를 세면 좋다는가 어려운 책을 읽으면 좋다는가 하는 말이 있다. 과연 효과는 어느 만큼 있을까?

효과가 있나 없나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말이 옛부터 있었다는 것을 보면 잠이 안 들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격적으로 신경질적이고 사물에 대한 것을 골똘히 생각하는 타입의 사람이 주로 불면증이 있고, 낙천적이며 그다지 사물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직업적으로는 견거나 몸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잘 자며 하루 종일 책상에서 머리만 쓰는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즉, 편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편안함이 필요한 것이다. 지적 사안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되기 쉽고 신경이 긴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면증에 걸리곤 한다.

내일이 소풍가는 날이라든가 데이트가 있다든가 하는 날 밤은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신경이 흥분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리자야 할 텐데 하고 의식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눈이 말뚝말뚝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우선

긴장한 신경을 풀 것. 그러려면 자기 전에 적당한 알코올을 마시는 것도 좋으며 미지근한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조깅은 아니라도 달리기 같은 것으로 땀을 흘려 본다거나 골프채를 휘둘러서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졸리워지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졸리운 것은 일정한 리듬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한 번 놓치면 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잠이 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여덟시간의 수면이 좋다고 하는데 수면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숙면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좋지만 깊게 자지 못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의 대부분이 얇은 잠을 자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볼 때는 오랜 시간 잠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면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역시 부족한 것만큼 어딘가에서 보충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근무시간 중에 앉아서 졸 수는 없으니까.

점심식사 후 20분이나 30분 동안을 자도록 한다. 이것만으로도 수면 부족은 해결되지만, 너무 많이 자면 역효과가 되므로 가면(假眠)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6]

## 第3章 基礎工

표 2.5.2 준설저면의 여굴

토 질	선종등	여굴두께(m)			비 고
		시공수심 -5.5m미만	시공수심 -5.5~-9.0m미만	시공수심 -9.0m이상	
점토질계토사 사질계토사	그래브준설선	0.5	0.5	0.6	
암 반	여굴두께는 원칙적으로 0.5m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는 시험굴착 또는 보링 등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표 2.5.3 준설비탈면의 여굴

토 질	선종등	여굴폭(m)	(수평거리)	비 고
암 반	여굴폭은 원칙적으로 2.0m로 한다. 다만, 이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는 시험굴착 또는 보링 등에 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5) 여 굴  
준설의 굴적은 기복이 있고, 기복의 높이는 시공수심, 토질 경연의 정도, 기상조건, 측량 및 운전상의 오차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때문에 소정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도서에 표시된 준설깊이 및 폭연에 시공상의 여유를 예상(그림 2.5.1)한 것을 여굴이라 한다. 저면여굴, 비탈면여굴은 표 2.5.2 및 표 2.5.3에 제시한 값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대형 펌프준설선에서는 여굴두께를 0.6~1.0m로 하고 있다. 백호우 준설선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래브 준설선보다 여굴의 실적치는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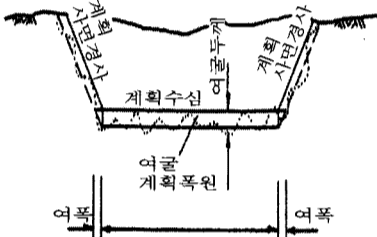


그림 2.5.1 준설단면

## 第3章 基礎工

### 3.1 공법·공사의 개요

#### 3.1.1 개 설

방파제, 호안, 안벽, 물양장 등 어항시설의 구조물을 축조할 때 통상 기초공을 시공한다.

어항구조물의 기초는 대부분이 해저에 만들어지고 재래지반이 암반 등으로 설계상의 지지력이 충분히 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재래지반을 기초로 이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석 등으로 기초를 만든다. 기초공은 상부 구조물로부터 가해지는 중량을 분산시켜서 기초지반으로 전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재래지반이 연약하여 지반응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지반개량이나

말뚝기초 등의 공법을 검토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지반개량공사(제4장) 및 말뚝기초공사(제9장)는 후술하기로 하고, 치환사공사에 대하여 본장에서 기술한다.

치환사공사는 연약한 점성토를 그래브(grab)준설선 등으로 굴착제거한 뒤, 구조물을 기초가 되는 양호한 사질토로 치환하는 작업으로 시공방법이 간단하고 단기간에 확실하게 양질지반이 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 규제개혁

### 어항시설 민자유치 활성화 도모

#### 규제개혁 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등 25개 법률에 있는 7백78건의 규제중 54%에 해당하는 4백22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백69건의 규제를 개선하여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증대키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7백78건의 규제는 해상운송 및 항만관련 사업의 진입·경쟁관련 규제와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 수산식품 위생관리, 수산자원의 보전 등을 위한 규제로서 이들 규제중 안전, 환경 등의 사회적 규제가 전체의 51.8%를 차지하고 있어 규제개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음의 규제정비방향에 입각하여 과감히 규제를 철폐키로 하였다.

#### 분야별 주요규제개혁 내용

해양수산부의 주요한 규제개혁 내용을 수산 항만 해양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산분야

수산분야의 규제개혁은 어촌의 생산기반시설인 어항시설 투자 및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혁과 수산업에서의 어업활동 자율화와 어업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이 주요내용으로서 어항법, 수산업법 등 관계법을 개정하여 99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첫째, 어항시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경미한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없이 공사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 의무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어항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자가 현재는 20년 범위내에서 투자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년 이내라는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어항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양식어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대상자 및 영어조합원인의 구성원 제한을 폐지하고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개발수면의 규모제한(60ha)을 폐지하여 양식어업에 대한 대규모자본의 투자를 용이하게 하였다.

셋째, 연안어업의 종류중 어획도가 낮아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채낚기 등의 어업을 연안복합어업으로 통합하여 어업인들이 해역별 어업의 여건

과 시기에 따라 어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수출용 수산물로 지정된 홍합, 바지락 등 7개 품목에 대한 의무검사제도를 폐지하여 수산물 수출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다섯째,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상 후대가 곤란한 맨손어업, 나잡어업 등의 신고필증 후대의무, 어업면허·허가증 등의 후대 및 비치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 항만분야

항만은 물류흐름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항만운영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양질의 서비스체제 구축이 항만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관건임을 감안하여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규제를 개혁하기로 하였다.

첫째, 항만시설은 민간이 투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투자하는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의 소유권을 인정하므로서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키로 하였다.

둘째, 외항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18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9종으로 축소하고 항만운영 전산망(PORT-MIS)을 98년 말까지 완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입출항 서류를 한번만 제출하면 세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전국 어디에서나 입출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그동안 민간기업이 제출하던 서류를 연간 92만건에서 27만건으로 감축함은 물론 연간 55억원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의 물류비도 절감토록 하였다.

셋째, 민간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는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토록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현금의예 이행보증증서 예치도 가능토록 하므로서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 해양분야

첫째,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면허를 받은후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공유수면매립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자 하거나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자유로운 권리변동이 가능케 하였다.

#### 앞으로의 규제개혁

해양수산부에서 98년도의 기존규제 대폭 폐지에 이어 99년에는 나머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철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행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철폐는 한편으로 해양수산업 종사자들에게 한차원 높은 자율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이 규제철폐에 따른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에서는 99년에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양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안  
내

안  
내